

해설 일본·중국으로 간 침구경험방

일본판본, 1725년 초간 ... 1807년엔 ‘침구명감’으로 간행

청나라 침구집성, 침구경험방 전 내용과 동의보감 침구부분 그대로 ‘표절’

일본에서는 조선의 침구경험방이 대단히 훌륭한 책으로 소개되어 허임이 일약 한류스타로 떠오른 반면, 중국에서는 침구경험방을 베껴서 ‘침구집성’이라는 책으로 출판하면서 라오훈이라는 청나라 의원이 저술한 책으로 거짓 저자를 붙이는 바람에 허임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조선의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 온 자들이 제법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야마가와준안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침구경험방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는 이 책으로 1725년 일본판본 침구경험방을 간행하면서 ‘조선이 침자의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야마가와준안은 침구경험방 일본판본의 서문에서 “침구경험방을 보니 핵심적이면서도 번거롭지 아니하고 간단하면서도 누락되는 것이 없었으니 이른바 백가(百家)의 요체를 뽑고 천고(千古)의 비법(秘法)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자는 누구나 각각 그 술(術)에 통달하고 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유독 조선은 침자(鍼刺)의 최고라고 하고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실로 거짓이 아니었다.”고 조선 침술의 명성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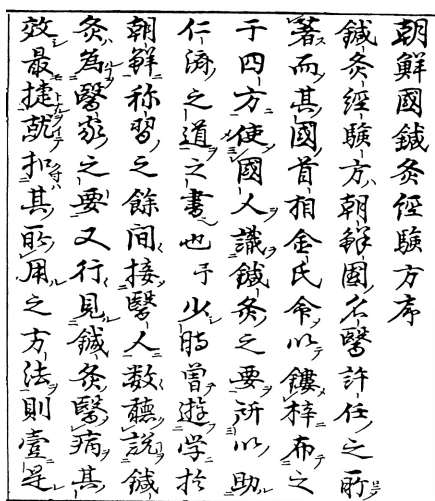
일본에서 침구경험방은 1778년에 다시 출간됐다. 1807년에는 침구명감(鍼灸明鑑)이라는 제목으로 또 인쇄되어 나왔다. 이

침구명감(鍼灸明鑑)에 서문에는 ‘허씨침구명감’ 혹은 ‘한인허씨소저(韓人許氏所著)’라는 내용을 명기하여 조선국 허임의 저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침구경험방과 조선 침구술에 대한 솔직한 소개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침구경험방을 가져가 베껴서 출판하면서 허임의 이름조차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라오훈(廖潤鴻)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청나라 대표적인 침구의서 침구집성(鍼灸集成)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 등을 짜깁기해 1874년 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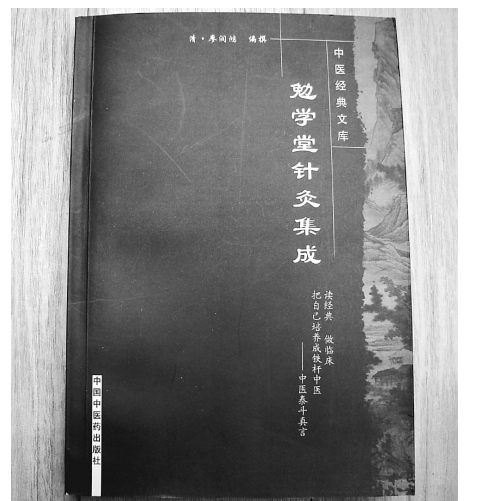
침구집성은 저술이 아니라 내용 전체가 다른 책을 그대로 복사한 데 불과하다. 침구집성 권1은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침법(鍼法), 구법(灸法), 금침혈(禁鍼穴), 금구혈(禁灸穴), 와혈(訛穴), 십사경순행(十四經循行)과 병후(病候), 침구길일(鍼灸吉日) 등의 내용을 ‘동의보감→침구경험방→동의보감’ 순으로 번갈아가며 베껴 놓은 것이다. 권2는 인체 각 부위에 따른 병증에 대한 침구치료법을 논하고 있는데, ‘침구경험방→동의보감’ 순으로 옮겨다. 권3과 권4는 경맥과 경혈에 대한 내용인데, 십사경의 유주(流注)와 유혈(俞穴)의 부위, 주치작용에 대해서는 유경도의 권6과 동의보



일본판본 침구경험방

감을 번갈아 옮겨다 놓았고, 140여개의 경외기혈의 명칭 부위 주치에 대해서는 유경도의 권10과 침구경험방, 동의보감의 별혈(別穴)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동양의학을 선도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지만 침구술은 조선에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의 침술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중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여 전한 사람은 정조 때 이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이갑(李岬)이다. 그는 1777년 청나라 연경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쓴 연행기(燕行記)에서 청나라 태의원(太醫院)에서 본 중국의 침술의 수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선 침구서적을 표절한 청나라 침구집성

여기서 그는 “청나라 태의원의 침술(鍼術)은 더욱 좋은 솜씨가 없다. 침은 우리나라 것에 비교하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더욱 괴로워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침술이 청나라 보다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의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 침구부분을 재구성하여 침구집성으로 펴내 침구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자인 허준과 허임이라는 조선 명의들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만평



허임 침술 계승한 후예들 화제

최우량 김종백 최유태 오정화 조정준 등 모두 당대 명의

허임의 침구술이 많은 침의들에게 계승되고 있어 화제이다. 허임의 침술을 이은 침의 김종백은 전라도 침의로 의술이 매우 정명하다고 알려졌다. 그의 이름은 승정원 일기에 70~80차례나 등장한다. 1784년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에 1784년 일본에 통신사 일행으로 간 조선의 의관 조송수는 “동방에 허임이 있어 (침술에)능통하였고, 김종백이 그것을 이었는데 지금은 없으니 애석하다”고 남겼다.

조선 최초의 소아전문의서를 지은 조정준은 그의 급유방(及幼方)에서 “숙종시대에 태의(太醫) 최유태와 별제(別提) 오정화는 모두 허임에게서 침술을 전수 받아 당대에 이름났다. 나는 이 두 사람에게서 그 침술의 연원을 전해 들었으므로 자세히 기록하였다”며 최유태와 오정화를 소개하고 자신도 그 맥을 잇고 있다고 전하였다.

최유태(1629~1697)는 조선 효종과 현종 때 내의원에서 김종백과 함께 활동한 침의다. 그는 승정원일기에 200여 건이 등장할

정도로 비중 있는 내의원 침의로 그의 집안은 4대가 의원을 지낸 의원가이다. 최유태는 23세 되던 1651년(효종2년) 의과에 합격했다. 허임처럼 그도 처음에는 치종교수로 활동하다 내침의로 들어갔다. 그는 김포와 양천 수령으로 파견되기도 했고, 송록대부까지 지냈다.

허임의 또 다른 제자로 알려진 오정화는 숙종 때 의과에 합격해 활인서 별제(종6품)까지 오른 침의로 치종교수를 거쳐 내의원 침의가 되었다. 그는 약물처방까지 익혀 나중의 의약동참으로도 이름이 올랐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또 다른 허임의 후예는 최우량(1599~1671)이다. 그는 허임과 활동한 남영의 아들 남창조와 함께 내의원에서 침술이 가장 정미로운 침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도 허임 침술을 연구하고 이으려는 후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허임 침구술이 세기를 넘어선 효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